

“기록관 설립 앞서 직제기능 마련 우선”

어제 제주도 역사 기록 사례 아카이브 모델 제안 강연 김재순 전 나라기록원장 초빙... “온라인 접근 작업부터”

재정부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된 제주기록원 설립에 앞서 제주도 차원의 기록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직제부터 설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읍)은 2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김재순 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원장을 초빙해 ‘제주도 역사 기록 사례와 디지털 아카이브 모델 제안’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특별강연에서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의 제주기록원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기록원에 연구진이 들어갔을 당시 가장 먼저 한 것이 국가 주요 행사 때마다 주요 기록을 발굴해서 공개, 홍보하고 공감대 조성부터 했다”고 말했다.

이러 김 전 원장은 “제주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면서 “규장각, 국가기록원 등에 제주도에 관한 주요 기록이 있고, 제주도 자체는 일부 있고 하는데, 그 원본기록을 모두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디지털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주도에 관한 기록들을 주제별로 선택해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김 전 원장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내용은 반드시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면서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에 관한 역사지식 역량을 높여주는 기능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이러한 과업을 추진하려면 제주도 기록관리계



29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주도 역사 기록 사례와 디지털 아카이브 모델 제안’ 특별강연.

라고 돼 있었는데 제주도에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제주도에 관한 전 근대시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록들을 수집, 분류하고 서비스하는 아카이브 기능부터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주도에서도 건물부터 해야 기록원을 만든다기 아니라 우선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제부터 만들어야 과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후에는 기록연구사 등 편제가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전문위원의 영역으로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며 “그러한 컨셉으로 기록관리 기능을 빨리 제주도에 만들어야 하며 만드는 작업은 제주도의회 몫이다”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서 4·3 다뤄질듯

여야,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임시국회 일정 합의 김한규 의원 첫날 질의자로 나서 관련 질문 예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김한규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4월 임시국회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 13일과 27일에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정부 질문도 진행된다. 4월 3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4일에는 경제분야, 5일에는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임시국회 일정이 수립되면서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는 여야 인사들은 이날 오전 행사 참석을 마친 뒤 국회로 복귀해 대정부질문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오전 추념식 행사 전에 제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해 지도부가 모두 제주를 찾을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소속 김한규 의원(제주시)은 대정부질문 첫 날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자로 나서 제주4·3과 관련해 질문할 예정이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2컨벤션’ 건립 추진 절차 재개되나

내달 6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서 설계 타당성 심의

예산 삭감 등으로 무기한 표류해 온 가칭 ‘제2컨벤션센터’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달 6일 열리는 올해 제6차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의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설계 타당성’이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지난해 진행 중 중단된 데 이어 최근 재개됐으며, 올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마친 사업에 투입할 예산과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제주도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 대해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국비와 도비 각각 280억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 자부담 140억원 등 총 700억원을 들여

중문관광단지 ICC 제주 인근에 연면적 1만5110㎡(부지면적 3만9401㎡) 규모로 추진돼 왔다.

2018년 착공해 2020년 개관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 부지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2년 가량 지연됐다. 사업 지연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의 영향으로 국비 280억원, 도비 360억원, 자부담 153억원 등 총 사업비가 793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특히 계획된 사업 착공이 이뤄지지 않자 국비 미교부 결정이 내려지면서 제주도가 지난해 ICC JEJU에 지원하기로 한 출자금(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비) 76억4400만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예산 관련 변경 심의를 받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등을 고려해 그 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강경흠 의원 “의정활동비 반납하겠다”

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서 강 의원 징계의건 가결

읍유문전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흠 의원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성찰하며 자숙하겠다”며 도민들의 용서를 구했다. 더불어 출석정지기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을 기부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414회 임시회를 열어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 징계의건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는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강경흠 의원의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이뤄졌다.

이날 강경흠 의원 징계의건은 무기명투표로 실시됐으며, 재석의원 39명 중 31명 찬성, 반대 8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강경흠 의원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29일부터 4

월 27일까지 출석이 정지된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고, 마음깊이 반성하며 도민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저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의회에서 결정한 공개회의에서 사과와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면서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3월에 받은 의정비와 출석정지기간의 의정비는 모두 반납하고 적절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면서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성찰하며 더욱 자숙하고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정부 “국내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내수 활성화대책 논의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숙박 예약시 3만원 할인, 유원시설 온라인 예약시 할인쿠폰 1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 전국 130개 이상의 지역 축제를 테마별로 연계 확대 개최하고, 지자체별 소비쿠폰 지급, 공공기관 숙박·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방문 관광객 1000만명 이상

회복을 목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과 이동 편의 제공, K-콘텐츠 확산 등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대만 등 22개국 대상 전자여행 허가를 2024년까지 면제하고, 전자사증 발급기간도 7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비자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리고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들이 한국 입국 시 작성 제출하게 되어 있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제출의무도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또 방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제항공편을 증편해 코로나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지했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재개한다.

서울=부미현기자

연주현씨 양의막파 친족회 모제 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안내

희망찬 癸卯年 새봄을 맞이하여 모제 봉행 및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송조애족의 마음으로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2023년 4월 2일(일) 오전 11시
- 장 소: 양의막 선영 (서귀포시 산상읍 신흥리 1469-4)
- 내 용
 - 제1부: 모제봉행 11시
 - 제2부: 정기총회 12시
- 봉제순 (재)제주장학회이사장 현 왕 수(현 현오봉의 차남)
- 연락처: - 회 장 명 식 ☎ 010-4693-5400 - 총 무 승 구 ☎ 010-3697-8998

연주현씨 양의막파 친족회
회장 현 명 식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킴/건축디자인
010-4324-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야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 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입춘대길(立春大吉) 물가안정 대 이벤트
보급형, 경제형, 고급형, 플래티넘 中 선택

국민건강을 위한 **생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심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무료주차)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